

# 공공일자리로 취업 취약계층 생계 안정 돕는다

### 전주시, 12일까지 공공근로사업 75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1명 공개 모집

전주시가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8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하반기 사업 규모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75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1명 등 총 86명이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공공근로는 65세

미만) 전주 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공공근로사업은 3억 원 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연령과 가구 재산, 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세대

2인 이상 참여자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공공근로사업은 9월 11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시내버스 회차지 및 승강장 정비 사업 △도심하천 환경정비 △맛배달 지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 서비스 향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사업 형태에 따라 주 20시간~35시간이며, 4대 보험 의무가입과 함께 시급 1만3200원의 임금과 주휴

수당, 간식비 등이 지급된다.

시는 사업 개시와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별 작업 여건에 맞춰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해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로컬플랫폼인 남부시장 '모이장'에서 펼쳐진 자원순환 문화 행사인 '쓰던것들의 파티'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자원순환 문화 행사 성황리 개최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모이장·제비마트 협업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로컬플랫폼인 남부시장 '모이장'에서 펼쳐진 자원순환 문화 행사인 '쓰던것들의 파티'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 모이장, 제비마트가 함께 협업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버려질 수 있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이틀간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발길이 이어지며 환경 보호와 재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21% Lab 의류 교환 파티'에서는 참가자들이 저마다 입지 않는

깨끗한 옷을 가져와 다른 옷으로 교환해 가며, 옷의 수명을 늘리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특별한 경험을 나눴다.

또한 시민 셀러들이 참여한 생활 소품 및 의류 플라마켓과 다시봄 입주기업들의 생활용 제품 판매 부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는 옷을 직접 고쳐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뜨개 수선 워크숍'과 무려진 길을 갈아 다시 쓰는 '칼질이 부스' 등도 운영돼 시민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는 대신 손길을 더해 다시 사용하는 생활 속 실천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주국가유신야행(夜行)' 및 남부시장 야시장 개장 시기와 맞물려 진행돼 전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선도적인 자원순환 문화를 선보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 지역특화 기술 결집으로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도약 알린다

### 전북·광주·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서남권 허브센터, 10개 기업 '가상융합산업대전' 공동 참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건, 이하 진흥원)은 전북·광주·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및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이하, KMF 2026)'에서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허브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KMF 2026'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융합산업 전문 전시회로, 최신 가상융합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를 한자리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16개국 606개사와 1800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공동관은 전북·광주·전남 3개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가 연합해 마련한 것으로, 총 12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서남권 기업 10개사가 함께 참여한다.

전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비롯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북·광주·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및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에서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허브 공동관'을 운영한다.

한 서남권 4개 기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축적해 온 가상융합 기반 기술과 주요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로 참여 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에 발맞춰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가상융합기술 실증 역량을 축적해 왔다.

전북은 농생명·영상, 전남은 에너지 융복합아트·산업안전, 광주는 의료·친환경자동차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가상융합산업 기술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동관은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첫 연합 전시라는 점에

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서남권이 개별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가상융합산업 권역으로 도약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기술 전시 외에도 관람객과의 감성적 접점을 넓히기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진흥원은 전주 교동미술관과 협력해 부스 후면부에 '오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3분'을 콘셉트로 한 '갤러리워크(Gallery Walk)'를 운영하고, 가상융합기술 전시 공간 속에서 지역 작가 3인의 작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서남권 공동관에 참여하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KMF 2026 공동 참가를 계기로 개별 지역 단위의 지원을 넘어 권역 공동의 AI·가상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서울국제관광전서 '최우수마케팅상' 수상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STTF 2026)'에서 '최우수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STTF 2026)'은 국내외 최신 관광 트렌드를 교류하고 지역별 관광 명소를 알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남원시와 순창발효관광재단과 함께 운영한 '관광거점도시 전주 시군연계 공동홍보관'을 운영으로 지역 간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군 연계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공동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공동 홍보관에서는 전주의 전



통 문화와 미식, 남원의 역사관광, 순창의 발효 특화 콘텐츠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권역별 연계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주시는 이번 수상과 공동 홍보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의 관광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까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권역별 체류형 관광 상품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보건소,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재가암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고온 환경에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13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건강 취약계층 5386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여름철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한다.

특히 보건소는 전주시상지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주지역에 폭

염 예보가 발표되는 즉시 관련 기상 정보를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과 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폭염 특보 체계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경보·폭염중대경보)로 개편됨에 따라 단계별 대상자 관리에 나선다.

먼저 폭염 주의보 시에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전체에게 폭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군별 맞춤형 건강 안부 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경보 및 중대경보 시에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전체에 폭염 안내 문자를 송부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통화 및 대상자 건강 상태에 따라 직접 방문 등 강화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